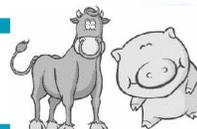


# 소· 돼지 가격전망



## 소

### 계절적 영향으로 약보합세



7월에는 준하물량이 많았지만 가격 하락은 없이 강보합세가 유지됐다. 여름철 수산물 소비가 줄어들면서 쇠고기 소비가 늘어나 오히려 한우요기 가격은 높았다.

한우요기 값의 고공행진으로 소비자가 발길을 수입산 쇠고기로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한우 브랜드육의 인기부위는 kg 당 10만원이 넘어가고 실행당한 그릇이 7천원이 넘으며, 2인당 5만원이 넘는 일 반등심이 쇠고기 소비를 축소시키는데 부채질하고 있다. 또한, 1인당 평균 쇠고기 소비량이 6.6kg 인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가격을 낮추고 소비를 늘릴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석을 대비해 많은 농가에서 입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통계자료를 보면 이를 입증할 수 있다.

산지 사육두수는 미국산 수입육 재개를 앞두고 육우 농가들이 많은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해 대거 한우 사육으로 전환하면서 육우 사육두수는 감소하는 반면 한우 사육두수는 크게 늘고 있다. 농가에서는 분지마식 한우 입식은 미국산 수입육이 시장에 풀릴 경우 가격 하락으로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주석전에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들어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 돼지

### 비수기에 들어가면서 약보합세

특정부위 선호도와 맞물려 고돈가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7월에 짊어들민시 시시히 가격의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 8월부터 비수기에 들어간다. 딱히 비수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기에는 준하량이 많이 늘어나는 시기가 됐다고 말하는 것이 맞다.

장기간 계속된 돈가 고공행진으로 수입돼지고기 국내시장 잠식이 크게 늘면서 출하물량이 약간만 증가해도 가격 하락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또한 품질의 균일도가 수입육에 비해 떨어진다. 품질이 떨어지면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면 가격도 같이 하락한다.

고돈가로 인해 생산자는 매가 불렀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하지만 잦은 소모성전병 발생으로 새끼 돼지의 폐사율이 높고 모돈의 유사산도 간혹 나와 이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 생산비 상승으로 인해 고소육을 울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많은 수의 모돈이 디위에 지치 생산성이 줄어든 상태다. 전진국의 경우 PSY(모돈 1두당 일간 이유 두수)가 20두를 상회해 생산량이 계속 늘고 있는 반면 국내 PSY는 지난해 14두로 모돈은 많이 늘었지만 생산성은 매년 줄어 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많은 사양가들이 모돈을 늘리고 있지만 모돈이 늘어난 만큼의 생산량 증가는 없었다. <이트뉴스 제8>

